

## 빨간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

이번 시간에는 홍수가 끝난 이후에 동물을 먹어도 된다고 사람들에게 말씀 하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 중에 "빨간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같이 알아보까요?

“모든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웠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것이니라”

- 창세기 9장 2절~3절 -

이 말씀을 보면, 고기를 먹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숨어있고 한 가지는 잘 보이게 있어요.

잘 보이게 있는 것은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이죠. 잘 안 보이는 주의 사항은 뭐죠? 알아낸 분들도 계신데, 그건 바로 '산 동물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살아있는 동물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당시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생적으로 동물을 도살할 수 있는 시설 요즈음의 도살장 같은 곳이 있었을까요? 또, 동물을 도살 한 후 죽어 있는 동물의 고기를 저장할 냉장고가 있을까요? 아니면, 고기를 말리거나, 소금에 절여 두면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노아가 알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게 동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건강하게 살아서 돌아다니던 동물을 잡아 빨리 먹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미리 생각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이 주의 사항에 들어 있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쉽게 이해할 수 없었던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신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죽은 동물의 몸에 관한 것이예요.

동물이 죽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사람이 살아 있는 건강한 동물을 도살해서 죽인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 말고 사람이 이미 죽어 있는 동물을 발견해서 잡아먹는 경우 말이에요. 동물이 그냥 죽는 이유는 병이 걸렸거나, 상처 나서 상처가 심해져서 죽었거나, 늙어서 죽은 경우겠지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죽었든지 이미 죽어있는 동물을 먹으면 사람의 건강에는 좋지 않아요.

병으로 죽은 동물은 그 동물이 앓았던 병이 사람에게 옮겨 질수 있어서 위험하고요, 상처 때문에 죽은 동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무 일없이 늙어 죽은 경우도, 죽은 이후에 몸의 저항력이 없어져서 나쁜 병균이 그 몸 안에서 빨리 자라기 때문에 사람에게에는 해로운 것이죠.

그러니,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서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지극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이죠.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죽어 있는 동물을 잡아서 그 고기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요리해서 음식으로 파는 것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식품위생법에서도, 병에 걸려 죽은 동물은 절대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죽은 동물, 특히 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는 사람에게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죠.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 번째 주의 사항 고기를 피채 먹지마라 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동물의 피에는 세균이 잘 자라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음식을 입으로 먹고, 그것을 소화시켜서 영양분을 얻어서 살아가는데, 그 영양분을 몸의 모든 부분으로 운반해주는 일을 피가 하는 거예요. 마치 영양분의 운반 기차 같은 거지요. 그러니 피 속에는 좋은 영양분이 듬뿍 들어있는 것이죠.

동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필요하듯이 나쁜 병원균들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영양분이 반드시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의 피는 그런 영양분을 세균에게도 듬뿍 듬뿍 안겨 주는 거예요.

이런 세균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먹고 잘 살라고 키우는 곳이 있는데, 병원이나 대학교의 연구소 같은 곳에 있는 '미생물 실험실 (Microbiology Laboratory)'이에요. 세균을 키워서 세균과 싸우는 약도 만들고, 어떤 곳에 세균이 많이 사는지 알아내서 세균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미생물 실험실에서 세균을 키우는 배지 (culture)로 동물의 피를 사용해요. 배지라는 말은 식물을 키우는 화분과 같은 것으로 세균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물질로 되어있어요. 그 배지에 세균을 넣고 따뜻하고 기분 좋게 해주면 세균이 쑥쑥 자라요.

양의 피로 만들어진 혈액 배지 (blood agar plate)에 세균을 넣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세균이 자란 무더기가 접시에서 관찰이 되는거죠. 이 세균 무더기들을 콜로니 (colony)라고 해요. 첫 번째로 포도상구균이라고 하는 세균이 있는데 우리 몸에 들어오면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괴심한 놈이죠. 지독한 식중독 세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장균인데, 우리 몸의 대장에 살고 있으면서 소화를 도와주는 착한 친구예요. 마지막 살모넬라라는 세균은 지저분한 닭고기에 주로 많이 사는데, 역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설사를 일으키지만, 약 먹고 쉬면 건강한 사람은 며칠 뒤 회복이 되는 조금 나쁜 식중독 균이에요.

이렇게 우리 몸에 나쁜 세균들이 잘 자라는 동물의 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그리고 살아있는 건강한 동물을 잡아서 신선한 고기를 먹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느껴지시나요?

© 「궁금해?궁금해!」, 한국창조과학회 제공